

의안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8. 18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따 로 불 입
4. 검 토 의 견 : 따 로 불 입

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3년 8월 27일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총 일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2003년 8월 18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8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 안 이 유

대전시민천문대는 2001. 5. 3일 개관이후 천문우주에 관한 시민과학
마인드 제고에 힘써왔으나, 2002년 유료화 이후 입장객이 크게 감소
하였으며, 교통이 불편하고 시설규모에 비하여 입장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있어

과학기술도시로서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건립된 시민천문대가 많은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천문우주과학 대중화에
기여하도록 현재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징수하는 입장료를 무료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입장료 징수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3. 검 토 의 견

- 동 개정 조례안은 2001년 5월 3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유성구
신성동 7-13번지에 개관한 연면적 233평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의
시민천문대가 무료로 개방되어 과학기술도시로서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현재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입장료를 징수하는 조항
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 동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시민천문대는 과학기술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2001년 개관당시 일일 평균 206명이던 관람객이 2003년 현재 일일 평균 95명으로 크게 줄어들어 입장료 감소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천문 우주교육장으로서 역할 수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음
- 이와 같은 관람객 감소원인에 대해 집행부의 설문조사결과, 시설과 프로그램은 대체로 만족하나 70% 이상이 입장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시민 천문대가 천문우주교육 및 과학의 저변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시민 천문대를 무료로 개방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징수하는 입장료 징수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 무료입장에 따른 수익 감소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확대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 및 이벤트 실시로 입장객 수를 증대시키는 등 종합적인 발전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됨